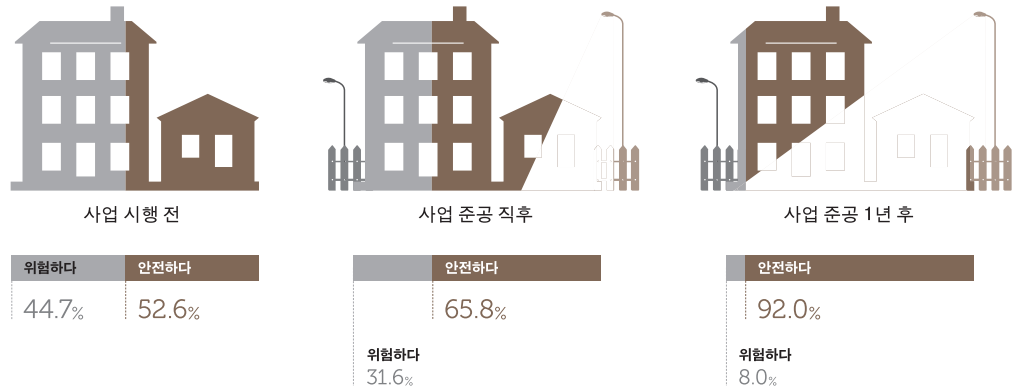


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후 지역 주민의 인식 변화는?

최근 우리나라에서 확산되고 있는 범죄예방 환경설계(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: CPTED) 사업이 지역 주민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, 2014년 시행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지 중 3곳*을 선정하여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. 특히 사업 이후 주민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사업지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시행 전, 사업 준공 직후, 사업 준공 후 1년 총 3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였다. 이번 통계자료실에서는 세 지역 가운데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의 결과를 중심으로 조사 내용을 소개한다.

Q 거주 지역이 더욱 안전해졌다고 느끼게 되었을까?

거주 지역의
안전성에 대한
인식 변화



A 사업 준공 후 거주 지역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늘었으며, 준공 1년 후에는 크게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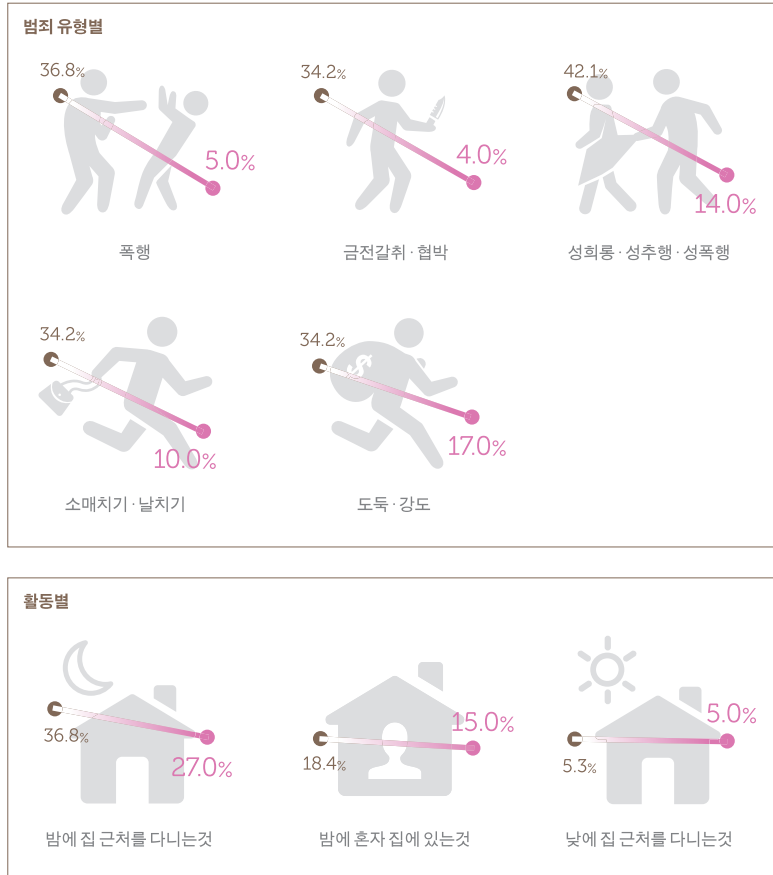
지역 주민이 느끼는 거주 지역 범죄 안전은 사업 시행 전 평균 52.6%에서 사업 준공 직후 65.8%, 사업 준공 1년 후 92%로 꾸준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. 특히 사업 시행 전과 준공 1년 후 거주 지역의 범죄 안전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이 큰 폭으로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. 이는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물리적 프로그램(CCTV 설치 등)에 대한 거주민의 인지 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소요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.

*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, 서울시 노원구 공릉1동, 부산시 영도구 청학1동

❓ 범죄 피해에 대한 범죄 유형별 · 활동별 불안감의 변화는?

범죄 피해 불안감
정도 변화

■ 사업 시행 전
■ 사업 준공 1년 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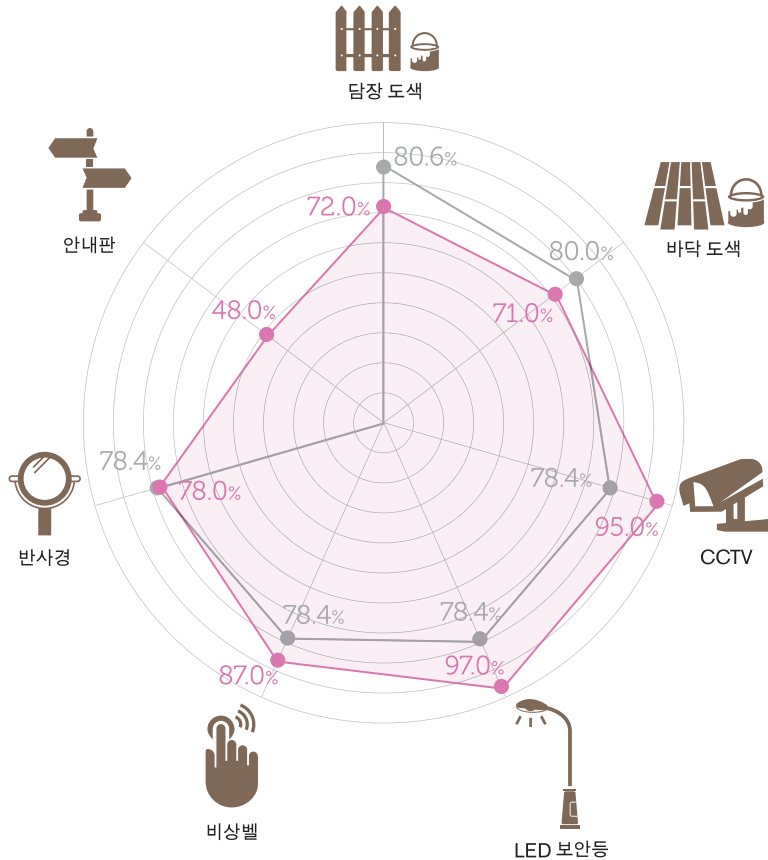
㉠ 사업 시행 전에 비해 준공 1년 후 현저하게 감소

범죄 유형에 따른 불안감은 폭행, 금전갈취·협박, 성희롱·성추행·성폭행 순으로 줄어들었으며, 야간 활동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. 이는 대상지 범죄예방 프로그램이 주로 공적 공간(도로 등)에 도입되어, 공공공간에서의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라 할 수 있다.

Q 사업 프로그램별 범죄예방 효과를 평가한다면?

사업 프로그램별
범죄예방 효과성 평가

■ 사업 준공 직후
■ 사업 준공 1년 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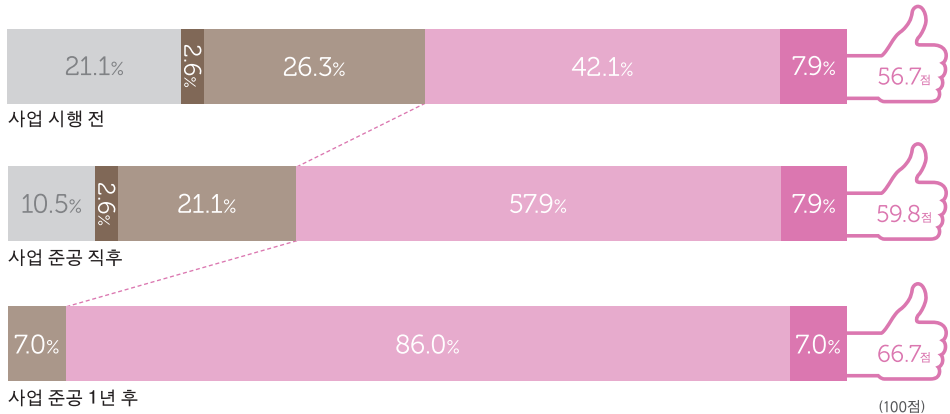
A 대부분 효과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, '담장 도색', '바닥 도색'의 경우 사업 준공 1년 후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

준공 1년 후 주민들이 효과가 높다고 인식하는 항목은 'LED 보안등'(97%)과 'CCTV 설치'(95%)이며, '담장 도색'(72%)과 '바닥 도색'(71%)을 제외한 대부분의 세부 사업들은 준공 직후보다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상승하였다. 조사대상지 3곳에서 공통적으로 '담장 도색'과 '바닥 도색'은 사업 준공 직후 효과가 높았으나 준공 1년 후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, 도색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유지·관리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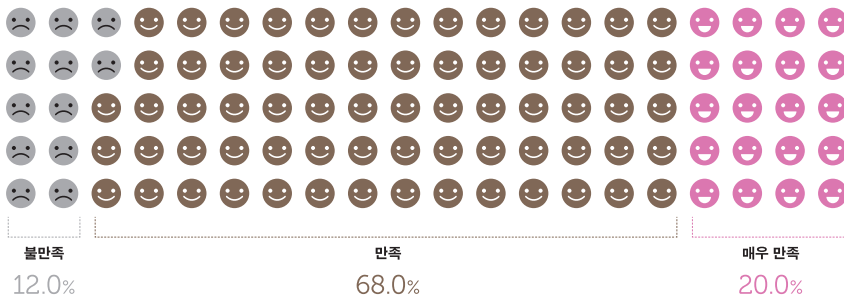
Q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만족도는?

거주 지역 주변
환경에 대한 만족도

■ 무응답
■ 매우 불만족
■ 불만족
■ 만족
■ 매우 만족



사업 전반에 대한
만족도



A 사업 시행 전, 준공 직후보다 준공 1년 후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

사업 시행 전 주민들의 지역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56.7점이었으며, 사업 준공 직후 59.8점, 사업 준공 1년 후에는 66.7점으로 나타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사업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 또한 88%로 높은 편이었다.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이 타 도시 관련 사업에 비해 소요 예산과 시간이 적은 것을 고려할 때, 주민의 범죄 불안감을 낮추고 지역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인 사업으로 판단된다.